

2024학년도

학교교육설명회
학부모 연수자료



2024. 3. 20.(수)



이 천 초 등 학 교

□ 차 례 □




1. 2024학년도 이천초 학교현황.....	1쪽
2. 학교 교육 목표와 비전.....	2쪽
3. 2024학년도 주요 학사 일정.....	3쪽
4. 불법찬조금 예방 및 근절 안내.....	4쪽
5. 부정청탁 금지법에 관한 학부모 연수.....	5쪽
6. 2024학년도 초등 성장 중심 평가 안내	7쪽
7. 선행학습 금지 및 공교육정상화법 안내.....	8쪽
8.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보호.....	10쪽
9.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12쪽
10.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14쪽
11. 성폭력 예방교육	15쪽
12.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대처방안.....	17쪽
1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22쪽
14.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26쪽
15. 자녀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29쪽
16.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연수자료.....	33쪽

1. 2024학년도 이천초 학교 현황

학교 연혁

· 1911. 05. 17	이천보통학교 창립 개교	· 1981. 04. 09	이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 1941. 04. 01	이천 제일국민학교로 개명	· 1996. 03. 01	이천초등학교로 개명
· 1954. 04. 01	이천국민학교로 개명	· 2023. 09. 01	제27대 김우현 교장 취임
· 1955. 05. 11	남천국민학교 분리 개교	· 2024. 01. 04	제111회 졸업식(총 26,932 명)
· 1974. 04. 01	특수학급 편성(1학급)	· 2024. 03. 01	초등 32(3)학급 편성

학교 상징

		
교 표 이천초등학교라는 울타리를 교육의 중심인 인간이 두 팔을 벌려 지탱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에 삼원색을 사용하여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참여함을 뜻합니다.	교목 : 소나무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는 항상 씩씩하고 건강한 이천어린이를 나타냅니다.	교화 : 개나리 이른 봄 산뜻하게 피어나는 개나리는 개성 있고 밝으며 아름다운 이천어린이를 나타냅니다.

학교 현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학급수	5	6	5	6	5	5	32
학생수	126	132	108	139	112	112	729

2. 학교 교육 목표와 비전



3. 2024학년도 주요 학사 일정

행 사 일	기 간	비 고
시 업 식	2024.03.04 (월)	
입 학 식	2024.03.04 (월)	
여름방학식	2024.07.26 (금)	
여 름 방 학	2024.07.27 (토) - 2024.08.11 (일)	16일
개 학 식	2024.08.12 (월)	
겨울방학식	2024.12.20 (금)	
졸 업 식	2024.12.20 (금)	
종 업 식	2024.12.20 (금)	
겨 울 방 학	2024.12.21 (토) - 2025.02.28 (금)	70일
학교자율휴업일	1학기 -	0일
	2학기 -	0일
개교기념일	5월 17일 금요일(수업실시)	

수업 일수	1학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학교자율 휴업일수	개교 기념일	총수업 일수
		20	21	21	19	20	0		101	0	.	
	2학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학교자율 휴업일수	개교 기념일	
		14	18	21	21	15	0	0	89	0	.	
												190

4. 불법찬조금 예방 및 근절 안내

1. 불법 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 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학생, 학부모, 교사)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 기간, 어린이날, 체육대회, 스승의 날, 명절, 동아리 활동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또는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포함)
- ☞ 금품(모바일 상품권 포함)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공익 신고 보상금 운영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지급기준 :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한도 30억원
- 지급방법 : 경기도교육청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상

3. 불법 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7~860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홈페이지 중앙 하단) 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www.hakbumo.or.kr → 학교 길라잡이 →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

5.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학부모 연수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기존	변경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10만원	▶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경조사비를 내려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선물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5만원	▶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음식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원	▶ 3만원 기존과 같음

*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



예를 들어,

- 인허가 신청인
- 지도·단속 대상자
- 입찰 상대방
- 인사·평가, 감사대상자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

부조 목적으로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Q&A

1 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A 방과후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A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이 적용됩니다.

3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 지도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4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

5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트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A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7 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8 교과목 담당교사인 기간제교사의 생일에 5만원 짜리 상품권 선물은 드려도 된다?



A 기간제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 학생의 성적 평가 등을 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드려서는 안됩니다.

9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능시험 격려를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도 됩니다.

10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A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6. 2024학년도 초등 성장 중심 평가 안내

1 초등 성장중심평가는 어떤 평가인가요?

성장중심 평가는 서열화나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닌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여 참된 학력과 핵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성장 하는지 확인하는 평가로 논술형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며, 정의적 능력 평가와 협력적 문제해결력평가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 참여와 협력을 중시합니다.

2 왜 성장중심평가를 하나요?

성장중심평가를 통해 학생은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와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에서 성장중심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장중심평가는 일제식 정기고사(중간·기말 고사 등)를 실시하지 않으며, 수행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수준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파악합니다. 성장중심평가는 학생의 학습을 개선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 과정 중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사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평가의 모든 내용과 결과는 수치화(점수화)하지 않습니다.

4 올해 성장중심 가정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장중심 가정통지는 각 학년 교육과정 계획 및 평가계획에 따라 수시로 가정으로 통지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시기와 횟수가 다릅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학습해오는 과정을 함께 돌아보며 이야기 나누고 칭찬해주시고, 학습 내용과 관련된 도서를 찾아 읽거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선행학습 금지 및 공교육정상화법 안내

1 선행교육 예방정책이란

- 의미: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
- 목적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
 -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정상화 실현
- 법적 근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규제 대상

“선행교육 예방 정책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시행 단위	규제대상			규제 범위
초·중·고 및 학 교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 학 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 (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교육 유발행위 (평가)	재 학 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 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 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대 학 교	대학별고사	응시 학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3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 특성화중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시, 학생정원·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행·재정적 조치

4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 대학 입학전형(논술·적성·구술시험 등)의 선행 출제 해소
 - 2016년에 비해 2017~2020년에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대학의 비율과 수가 현저히 감소
-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평가·출제가 현격히 감소
 - 외고·자사고 등 일부 중·고교 입학전형의 선행 출제·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내용의 위반 건수는 2016년에 23건에서 2019년에 5건으로 감소
-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방지
 - 학원 등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393건, 2017년 234건, 2018년 24건, 2019년 7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

5 선행교육 예방 정책, 오해와 진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Q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나요?

A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점검단 또는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보호방안

I 인권이란?

1. 인권의 개념

인권(humanrights)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사회적 또는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양성을 지닐 수는 있지만, 인권 그 자체는 국가나 실정법 등에 의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2. 인권의 특성

가. 인권은 그 권리 주체나 의무 담지자가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가령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처럼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달리 인권은 그 주체나 그 상대방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나. 인권은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권리이다.

- 가령 난 힘이 세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이처럼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

다. 인권은 실정법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 도덕적 권리이다.

- 인권은 도덕적 권리일 뿐 아니라 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이행 가능한 법적 권리일 때 인권은 효과적으로 보장 될 수 있으며, 오늘날 인권은 국내법 뿐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국제법적 근거를 가진 권리이다.

라. 인권으로 보장되는 내용은 인간 존엄성에 매우 중대하며 긴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유엔은 인권을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권리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인권은 그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사회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사회가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이며, 그것 없이는 기타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필수적인 것을 내용으로 한다.

II 학생인권이란 ?

1. 학생인권의 개념

- 가. **학생자유권** :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나. **학생복지권** :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⑧ 교육에 대한 권리 / ⑨ 건강권 / ⑩ 안전권 / ⑪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⑫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⑬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⑭ 권리를 지킬 권리
- 다. **학생 평등권** :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5절	양심,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8절	징계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0절	소수학생의 권리 보호

3. 학생인권의 제한

- 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
- 나. 타인 배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필요
 - 합의된 규범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 시 책임의 엄격성 인식 (인권교육의 중요성)

9.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여러 매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되는 요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흔히 알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아동학대 사안발생시 해결방안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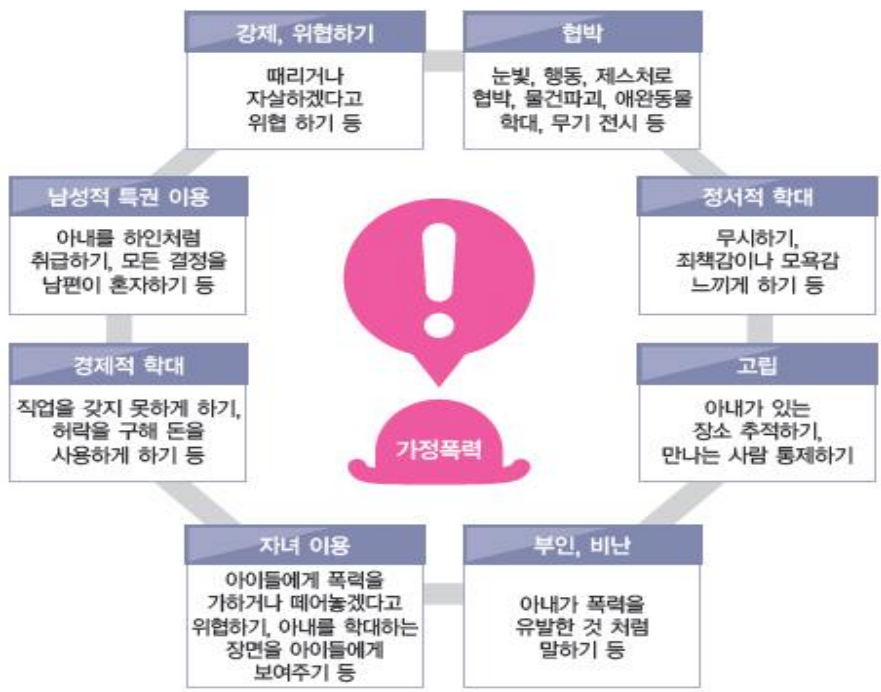
< 아동학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 >

 <p>첫번째.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겠어?' 매년 아동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일은 9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4년기준) 부모라는 이유로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을 양육할 것이라는 것은 편견입니다.</p>	 <p>두번째.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계부모 or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통계에 따르면 친부모가 아동학대인 경우가 79.9%입니다. (14년기준)</p>
 <p>세번째. 부모가 체벌하는 것은 '사랑의 매' 부모 중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속에 신체폭력을 자행하기도 하는데,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매맞음으로 고쳐지지도 않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어떤 상황에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p>	 <p>네번째. '아이가 부모한테 한 두 번 맞을 수도 있지' 아동학대의 85% 이상이 '가정내발생'하였으며, 피해아동의 70%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 받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14년기준)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p>
 <p>다섯번째.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맞겠지.'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아동의 문제행동을 '나 같아도 그러겠다.', '이런'에는 어떻게 키우나'라는 편견으로 비관/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p>	 <p>여섯번째. '부모자식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닐까?' 아동학대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되지 않으면 만성화 될 우려가 있으며, '아동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남의 일이라는 관점 대신에 '인권중심'의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p>



가정폭력이란

-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대처 안내

- ▶ 모든 어린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있다면 신고하여 주세요.
- ▶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는 112,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10.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I 알아차리기 - 위험신호

- 가. 행동적 의사표현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 의미 있는 소유물 정리
- 자살사이트, 엽기사이트 등에 심취
- 나. 언어적 의사표현 - 말, 글, 그림, 낙서 등을 통해 자살을 언급
- 다. 상징적 의사표현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지각, 무단결석이 잦음
- 평소와 다른 기분 변화나 행동 변화, 식사·수면 상태의 변화

II 가정에서 대처방법



▶ 자살의 예방과 대처

- 비판 / 충고 / 설교하지 말고 경청하기
- 학생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 학생이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망 열어 놓기
- 자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보살펴주기

자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심으로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봐주시고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행동을 눈여겨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 성폭력 예방교육(가정에서의 지도법)

소중한 우리의 학생들이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서 자녀에게 수시로 상황에 알맞은 성범죄 예방 행동 요령을 지도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 어른(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매일 대화하는 가정 분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성과 관련하여 강제로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아무리 성폭력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이 창피하고 싫었다면 성폭력입니다. 따라서 아이들끼리 하는 나쁜 욕, 치마 들추기 등 몸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성폭력의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속옷으로 가려진 부분을 함부로 만지게 하거나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몸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2. 우리 몸의 소중함을 인식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함부로 나의 몸을 만지게 하거나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친구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장난치거나 말로 놀려서도 안 됩니다. 나는 장난이었지만 친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3. 싫으면 싫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싫은 느낌으로 나에게 행동할 때 참지 말고 분명히 큰소리로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도록 같이 연습 합니다. 조금이라도 싫은 느낌이 들 때 참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어른이라 하더라도 싫다는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싫은 느낌과 좋은 느낌을 구별하도록 평상시에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아무리 사소한 느낌이라도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학교에서(친구 간에) 성폭력 유형 및 예방법

«유형» 치마 들추기, 장난으로 하는 뽕침, 화장실에서 훑쳐보기, 음흉한 눈빛, 언어적 성폭력, 친구 간의 성희롱, 성추행, 장난 문자나 전화, 엉덩이 등 신체 부위에 대해 놀리거나 치는 행동 등

-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이며,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무심코 하는 친구 간의 행동들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는다.
- 원치 않는 행동에는 즉시 'NO' 라고 말한다.
- 거절할 때는 미소 짓지 말고 분명하게 내 주장을 표현한다.
- 위험한 느낌이 들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한다.
-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임을 잊지 않는다.



●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성폭력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 언어 습관을 버린다.
- 행동하기 전에 '내 가족이라면?' 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본다.
- 상대방의 'NO'는 거부로 받아들인다.
-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오해하지 않는다.

성폭력을 당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전문기관 안내)

-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 숨기거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등)이나 성폭력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는다.
- 증거확보를 위해 씻지 말고 그 상태로 가능한 빨리 근처 **성폭력전담 의료기관(1366문의)**이나 **ONE-STOP지원센터**에 가서 치료 및 증거채취를 한다.(병원)
- 입었던 옷과 속옷, 가해자의 담배꽂초, 물 컵 등 증거물로 챙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챙겨놓는 것이 좋다.
- 목격자를 알아 두는 것도 매우 좋다.
-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신고해야 제3자도 반복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 **경기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다.

12.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대처방안

★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발생 시 처리 절차 안내 ★

1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4)

유형	예시 상황
신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o, 바o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협박)
금품 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정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이렇게 예방해요

- ▶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34.2%)이 가장 높습니다.
가정, 학교에서의 언어순화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 ▶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학생의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 ▶ ‘몰라서, 장난으로, 욕해서’ 괴롭혀도 폭력임을 가르칩니다.
-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 ▶ **쌍방사안 주의** :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면 **자신도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므로 상황을 피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칩니다.
- ▶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공동체의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발췌 (교육부, 2024)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당황해하시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평소에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를 알아 두면 침착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은 **[자체 해결 사안]**과 **[자체해결 불가사안]**으로 나뉘게 됩니다.

☑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처리내용
학교 학교폭력 사건발생인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학교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양식1-1>에 반드시 기록
신고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등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초기 사실확인 실시 - 관련학생 확인서<양식2-1> ■ 신고접수된 사안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양식1-2>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양식1-3>, <양식2-1>
학교	■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려·심리적 안정 등)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성범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 사안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가능<양식2-3>
제로센터 (조사관)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양식2-1>, <양식2-2>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양식2-4>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시 관련 동의서를 전달기구에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학교	■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1>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2> ※ 학교장은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부동의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법률 제13조의2제3항)
자체해결 사안	
[학교] 자체해결/관계회복	
• 자체해결 통보 - 학생·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상담 - 프로그램 참여	
학교장 자체해결	
자체해결 불가 사안	
[제로센터]사례회의/보완조사/관계개선 지원	
• 사례회의 개최 - 조사의 완결성·객관성 확인 - 중대사안 수사 의뢰(필요시)	
• 보완조사 - 조사관 추가 조사 - SPO 자문	
관계개선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학교장의 긴급조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 거부·회피 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4

피해학생 보호조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조치
	2호	일시보호	일시적으로 가정, 보건실, wee클래스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4호	학급교체	동일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
	6호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의료기관 연계, 법률 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5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혹은 졸업 2년 후 삭제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진술한 사과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반성과 화해로 관계 회복을 하도록 하는 조치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금지	추가 폭력 예방을 위해 의도적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조치
	4호	사회봉사	교외 지정된 기관에서의 봉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
	6호	출석정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치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을 하도록 하는 조치.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7호	학급교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8호	전학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을 원거리 학교로 옮겨 격리시키는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의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 ▶ 심의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적인 선도**를 목적으로 함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시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1,2,3호 조치

- ▶ 졸업 2년 후 삭제 : 4,5호 / 졸업 4년후 삭제: 6,7호 / 8호는 졸업 4년후 삭제이며 심의대상아님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하여 **심의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하나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17조5항**

- ▶ 심의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진술 뿐만 아니라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이며, 이 경우 절차상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다만 심의위원이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학생 확인서를 볼 수 있나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 관련학생(상대, 목격) 확인서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본인 자녀 진술서만 직접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도 잘못했지만, 상대 학생은 더 큰 잘못을 했어요.**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2020)**

- ▶ **쌍방사안으로서 두 학생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됩니다.** 쌍방사안의 경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에 따라 가·피해 학생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이 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심의위원회 조치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 심의위원회는 두 학생 모두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합니다.

6**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1)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징후	가해학생의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 쉽게 잠이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 ▶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 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한다. ▶ SNS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한다.

2) 가정 내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지도를 꾸준히 해주시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①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②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 ③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 라고 이야기한다.
- ④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켜야 할 예절 등을 교육한다.
- ⑤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한다.
- ⑥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해 둔다.
- ⑦ 자녀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양육한다.
- ⑧ 주변의 학교폭력관련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 117, 1388 등)
- ⑨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 상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했을 때 학부모의 올바른 대응은 자녀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학교생활을 계속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최종목표는 모든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피 해 학 생 이라면?	<p>피해학생의 경우 위축되어 있거나, 상황을 과대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통해 자녀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하세요. 2)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3)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세요. 4) 먼저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5)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	--

가 해 학 생 이라면?	<p>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잘못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2)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3)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4)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5)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6)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7)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조치결과 이행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	--

●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준다.**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엄마가 도와줄게” 등의 대화를 통해 힘을 실어준다.

● **감정을 잘 조정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한다.**

자녀는 이야기를 하면 혼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갖고 있다. 자녀를 다그치기 보다는 충분히 마음이 안정·진정되도록 기다려준다.

●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고 반응하며 아이의 욕구를 파악한다.**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아이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한다.

● **피·가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녀가 겪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심리적 고통을 침착하게 정리하여 학교에 알리고 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적절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선도조치가 취해지도록 사건 처리를 요청한다.

●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집단폭행 및 따돌림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자녀가 겪은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한다.

●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과정의 최종 목표는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하는 것임을 기억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놀라운 마음에 상대측이나 학교 측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격해진 감정과 대립관계에 집중되어 자녀의 상태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한다.

●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푸른나무 청예단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
-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헬프콜 청소년상담 1388 (위기상황 상담 및 연계 지원 서비스)
- 시·도교육청 Wee센터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서비스망)

1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보호를 통하여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교직원·학생·보호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활동 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교원 연수, 학생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1.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하나요?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Q2.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상해, 폭행: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폭행),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상해)
-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명예훼손: 공언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모욕: 공언히(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 기타 교권 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조치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3.27.자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또한 학생 외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로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결정된 경우 참여하지 아니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침해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근절 특별교육기관 연계·실시 - 전문상담사, 교육전문가, 퇴직교원 등 활용 별도 프로그램 운영 - 인근 시·도교육청과 연계 협력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 소환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침해 학생이 교육감 지정 특별연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함께 특별교육 이수 -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 불응 시 과태료 부과 <p>※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및 22조 준용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3항 및 제15조 신설 ※ 1991년 신설, 2010년부터 법적 근거 및 효력이 구체화</p>

Q4.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생긴 경우 학교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 담임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희망할 경우- 교육활동 시간 중에는 통화가 어려우니 교무실로 전 화하여 통화할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거나, 하이클래스 등 각 학급별 소통창구를 통해 선생님께 희망하는 시간을 남겨 주시면 교육 활동 후에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 학교 방문을 희망할 경우- ①사전에 방문목적을 밝히고 면담시간을 정합니다.(학교 누리집 학부모 상담신청 메뉴 활용) ②면담시간에 행정실(또는 배움터지킴이실)에서 방문증을 받고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③방문증을 패용하고 담임 또는 희망하시는 분과 면담(상담)을 진행합니다.
- ※ 학생의 안전사고, 다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서는 학생간의 다툼과 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폭 담당 전담경찰관을 통하여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호자의견서 및 자녀분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셔서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Q5.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내용을 알려주세요.

-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생활습관, 관계성 교육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가정 교육을 통한 내면화가 꼭 필요합니다.
-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임을 알려주세요.
- 교원과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기억해 주세요.

Q6.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를 참고하세요.
- <https://forteacher.kedi.re.kr/web/board/list.do?mId=70>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

영역	주요 내용
폭행·상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폭행 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며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신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을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협박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협박 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피해가 예측되어야 함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경우 · 피해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을 기자와 교육청에 말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모욕·명예훼손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모욕 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명예훼손은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교원의 외모를 지칭하며 경멸적으로 말하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손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손괴 는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막는 것을 의미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이물질을 담임교사 차량의 에어컨 배기구에 부어 손상을 입힌 경우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는 강0,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 및 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 시 허리, 종아리, 허벅지 등 일반인의 시작에서 접촉이 꺼려지는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 ·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1)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①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에게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이 역시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

3호)	<p>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p> <p>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 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p>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p>	<p>1)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는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혹은 위계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직무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경우, 직무/업무라는 법익 또한 침해되었으므로 교육공무원인 교원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 경우
<p>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p>	<p>1)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p> <p>2) 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p>
<p>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p>	<p>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p> <p>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p>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p>	<p>1)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원 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p> <p>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p> <p>*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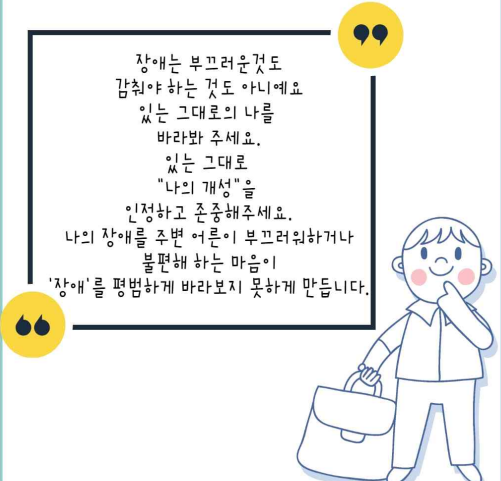
학생의 행복이 교사의 행복입니다.
부모의 마음, 교사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지지하여 주십시오.

14.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1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 라고 말하는 때는 우리가 그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그 사람의 많고 많은 특징 중에 하나일 뿐! 피부가 까만사람, 하얀사람, 머리길이가 긴 사람, 짧은 사람, 화사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 어두운 옷을 좋아하는 사람, 다리가 긴 사람, 짧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런 특징들은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다양합니다. 다양성에는 인종, 키, 성별, 나이, 취미, 특기, 취향 등등과 더불어 장애까지도 포함됩니다.



장애는 부끄러운것도
감춰야 하는 것도 아니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 주세요.
있는 그대로
"나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세요.
나의 장애를 주변 어른이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 하는 마음이
'장애'를 평범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1. 친구를 부르고, 지칭하는 말은 친구의 예쁜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친구를 불러주고, 다른 말은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친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다가가도록 해주세요. "♡♡야, 안녕?"
2. 배려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누군가 소중한 부모님의 자녀를 뚫어지게 보거나 수군댄다면 기분이 어떨지 역지사지의 마음을 이야기 나눠주세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아이만이 아닌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을 위한 학부모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분리교육**을 실시하여 또래 친구들과 필요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3

통합교육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물론 비장애 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

- ① 비장애 학생과의 상호작용
 - 다양한 토래와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응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②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 ③ 자존감 향상
- ④ 연령에 맞는 폭 넓은 교육
 - 토래와 상호작용하고 통합학급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리교육에서는 누리기 힘든 폭 넓은 교육을 통합 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장애 학생

- ①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
 - 현대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서로 다름의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 ②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버리고,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웁니다.
- ④ 인권감수성의 향상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함께 지냄으로써 인권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느껴 인권감수성 향상의 기회가 됩니다.

4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차별 진정 접수 국번없이 1331)

■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차별행위)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방안

장애학생의 경우, 비장애학생의 보호조치와 구별되는 전문적 인권보호 방안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이행 훈련을 통해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것이 필요,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사안 발생 전과 후의 관리가 필요하다.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성폭력의 유형

◆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해하는 범죄 -폭행 및 상해, 유기 및 학대	◆ 명예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범죄 -의사에 반하는 신상정보 공개나 사실의 공연한 적시, 성적 비하, 신체적·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
◆ 신체 및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협박, 강요, 감금, 약취 및 유인	
◆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강제추행, 강O 등의 성범죄	◆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 -횡령, 배임, 금전갈취(사기와 공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에게
상처주는 학교폭력,
이렇게 일어나요!**

- ① 욕을 하고 무시하고, 장애학생이 혼자 있을 때면 이유 없이 괴롭혀요.
- ② 지체장애 학생의 걸음걸이나 말투를 흉내 내며 웃어요.
- ③ ‘애자’라고 불러요.
- ④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부수거나 뺏어요.
- ⑤ 매일 욕을 하고 앉아있는 의자를 강제로 빼서 다치게 해요.
- ⑥ 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주어요.

★★장애학생 대상 학교 폭력 징계★★

비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가중 처벌합니다.

15. 자녀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알아봐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현황 및 문제점

- 스스로는 조절이 어려운 중독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점점 증가함.
- 인터넷 중독률은 중학생 13.2%, 고등학생 11.7%, 초등학생 9.7%로 10대 청소년은 10명 중 1명이 중독 수준에 해당함.
-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은 10명 중 3명 수준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중독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 우뇌의 집중력, 사회성, 공간지각 능력 등이 저하됨.
 - 심각한 주의력 결핍 증상(ADHD)
 - 과도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파콘브레인으로 뇌 구조가 바뀜
 - 또래와의 대화나 놀이에는 흥미를 못 느껴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침
 - 체형이 비뚤어지고 척추측만증(성장장애)이 생김
 - 학습능력이 저하됨

함께 만들어요!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자율실천 규칙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가족회의를 통해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자율실천 규칙을 만들고 실천해 보세요.

<자율 실천 규칙>

1. 꼭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만 검증 과정을 거쳐 다운로드 하기
2. 보낸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3. 암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기
4.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5.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만 켜놓기
6. 과도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지 않기
7.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올리지 않기
8. 걸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기
9.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글(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옮기지 않기
10.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갖기
11.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경우 스마트폰은 넣어두기
12.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 사용하기
13.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 사용하기
14.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15. 가정에서는 가족의 스마트폰 함께 모아두기
16.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기
17. 나만의 스마트폰 사용 수칙 만들기
18. 메시지 작성 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리기
19.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 괴롭히지 않기
20. 사이버 상에서 문제 발생 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 요청하기
21. 사이버 상의 정보를 맹신하지 않기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 표준안

1 안전(Safety) 부문

규칙	1.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하기
설명	위변조된 어플리케이션 속에는 위험한 악성코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만 안전한지 검증 과정을 거쳐 다운로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	2. 보낸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설명	문자메세지나 메일의 첨부파일이나 링크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예 열어보거나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	3. 암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기
설명	스마트폰 속에는 나와 주위사람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암호를 설정하여 나와 내 주위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규칙	4.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설명	백신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규칙	5. 스마트폰 플랫폼 바꾸지 않기 (탈옥 및 루팅)
설명	6 마트폰 플랫폼을 바꾸면 보안기능에 취약할 수 있으며, 변경과정에서 스마트폰이 작동불능 상태가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규칙	6.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만 켜놓기
설명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평소 꺼놓다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전원낭비를 줄이고 해킹 등의 위험요소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	7. 과도한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기
설명	자신의 개인정보는 물론 친구에 관련된 정보를 올리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일사진이나 다른 사람의 사진 등을 올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규칙	8.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올리지 않기
설명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올리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저작권과 무관한지를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규칙	9. 걸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기
설명	인도나 횡단보도를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걸을 때는 반드시 스마트폰보다 전방과 좌우를 살피면서 걸어야 합니다.

규칙	10.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지 않기
설명	사이버공간은 현실 공간보다 파급력이 훨씬 큼니다. 따라서 허위로 올린 글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게시자나 퍼 나른 사람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2 태도(Attitude) 부문

규칙	1.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갖기
설명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 때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갖고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뇌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규칙	2.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스마트폰은 넣어두기
설명	식사시간이나 대화를 할 때처럼 다른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 때는 기초적인 예절로 스마트폰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보이지 않게 넣어둡니다.

규칙	3.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 사용하기
설명	스마트폰을 할 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른 자세로 해야 스마트폰으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	4.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 사용하기
설명	식사를 할 때나 화장실에 갈 때 등 스마트폰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규칙	5.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설명	잠자기 전이나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꺼두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두뇌활동을 줄이고 편안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규칙	6. 가정에서는 가족의 스마트폰 함께 모아두기
설명	신발장이나 식탁 위 등 가족이 정해놓은 장소에 스마트폰을 함께 모아둡으로써 불필요한 스마트폰의 사용을 줄이고 가족간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규칙	7.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기
설명	하루의 끝이나 한 주에 한 번씩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반성해보고 새롭게 시작될 하루나 한 주에 스마트폰 사용 계획을 세워 규칙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규칙	8. 나만의 스마트폰 사용 수칙 만들기
설명	스마트폰은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맞는 스마트폰 사용 수칙을 정하고 스스로 조절하며 절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규칙	9. 메시지 작성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리기
설명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규칙	10.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기
설명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는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 모르는 것을 확인하기보다는 대화나 깊이 생각해보고 스스로 사고하고 기억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규칙	1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 괴롭히지 않기
설명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소한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실생활에서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규칙	12. 사이버 상에서 문제 발생 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 요청하기
설명	사이버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합니다.

규칙	13. 사이버 상의 정보를 맹신하지 않기
설명	사이버 상에 올라온 다양한 정보들은 모두 올바른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바라보고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균형잡힌 지적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6.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연수자료

○ 학교생활기록부란?

- 학생: 종합성장보고서
- 교사: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에 대한 종합기록
- 법정장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근거법령

- ①초·중등교육법 ②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③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학생 기본사항	비교과 활동	교과학습 발달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자율, 동아리, 진로)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의 행동특성, 학생에 대한 종합의견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개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기재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안내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 인적·학적사항

- 학적생성일 변경에 따른 신입생 학년도 시작일(3.1)로 일원화

< 학적 생성일 관련 주요 참고 법령 >

- (1)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1학년) 학적 특기사항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입력 변경
(학적 특기사항 → 생활기록부 3.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신설) (2~6학년 유지)

■ 훈령 제477호 (1학년)

제7조(인적·학적사항)

- ①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 ②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과 같다.
-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훈령 제433호 이전 (2~6학년)

제7조(인적·학적사항)

- ①~③ < '훈령 제477호'와 동일 >
-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출결상황

- 결석신고서 용어 변경(결석계에서 결석신고서로)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6) 환경부로부터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에서 '경계' 단계 삭제

2023학년도	2024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현재 '경계' 단계이기 때문에 가정학습은 2024학년도에 시행되지 않음

○ 창의적체험활동 상황

- 창의적체험활동의 영역 변경
- 기존 4개 영역에서 3개영역(자율·자치활동·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으로 단축 및 안전한 생활 삭제

1. 제4조(처리요령)

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리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항 목		입력 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급담임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자치활동*·봉사활동 (*3~6학년은 자율활동)	학급담임교사
	진로활동	학급담임교사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전담)교사,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 1~2학년의 자율·자치활동과 진로활동은 학급담임교사, 동아리활동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봉사활동은 학급담임교사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함.